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에 관한 연구*

An Analytical Study of Children's Book Review Media

장 지 숙(Ji-Sug Jang)**

목 차

- | | |
|--------------------|-----------------------|
| 1. 서 론 | 3. 서평의 내용 분석 |
| 1. 1 연구의 목적 | 3. 1 분석 항목과 방법 |
| 1. 2 연구 방법 | 3. 2 내용 분석에 의한 매체별 특성 |
| 1. 3 서평과 서평 매체의 특질 | 4. 선정 서평 매체 분석 |
| 2. 서평 매체의 분석 | 4. 1 서평 선정과 분석 방법 |
| 2. 1 대상 선정과 분석 방법 | 4. 2 서평의 심층 비교 |
| 2. 2 매체별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각종 매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러한 매체에 수록된 서평이 선정 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적절한 서평 매체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 중 추천한 매체만을 대상으로 한 서평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서평 매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의 관점에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한 서평 매체의 발행이 요구된다.

ABSTRACT

Book review is a mean that provides qualitative evaluation and at the same time it plays a role as selection tools for librarie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media providing reviews on children's books, evaluated whether the reviews in the media were useful as selection tools of current books, and a desirable model for the book review media that would reform the existing problems was suggested. The efforts to make up for the above suggestions are needed, so that the current children's book review media can properly play a role as selection tools. Above all, at this point in time, it is necessary to publish review media made in the view of libraries and librarians.

키워드: 어린이 도서, 서평, 서평 매체, 선정 도구

Children's Book, Book Review, Book Review Media, Selection Tools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isjang@yahoo.co.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7일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어린이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도서관이고 사서는 어린이 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판물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서가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면서 좋은 책의 기준도 충족시키는 도서들을 선정하는 작업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서를 선정하는 사서가 구입할 모든 책을 좋은 책의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은 실제 업무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출판연감』(2003)에 의하면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어린이 도서는 6,103종이다. 개인이 이만한 양의 책을 모두 접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욱이 전문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양질의 어린이 도서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한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평은 해마다 수없이 출판되는 책들에 대한 기술적이고 평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의 하나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어린이 도서란 작가와 출판사가 어린이를 독자로 생각하면서 집필하

고 출판한 책이다(Townsend 1971, 10; Sutherland 1997, 5; Temple et al. 1998, 8). 출판사에서 어린이 도서라고 발행한 책을 대상으로 어린이에게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교사, 사서, 학부모, 서평자의 역할이다. 어린이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어린이라고 보았다.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판단은 개별 도서를 평가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요소이지만, 본 연구는 전체 어린이 도서를 서평한 매체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므로 발달 단계에 따른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란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독자로 생각하여 출판한 책에 대한 서평을 게재한 매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는 매체의 존재를 찾아내고, 발견한 서평 매체의 서평 내용을 분석하여 선정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서평 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간 어린이 도서 선정 도구로서 적절한 서평 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매체의 존재를 탐구하였다. 둘째, 발견한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평 매체를 개별 서평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양적인 내용 분석을 통하여 선정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서평 매

체에 수록된 서평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평 매체의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정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갖춘 서평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서평과 서평 매체를 분석한 일반적인 이론적 준거를 바탕으로 분석 항목을 추출하였다. 둘째, 어린이 도서 서평을 게재하는 매체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는 매체의 종류를 일간지, 잡지, 온라인 형태로 나누어 조사하여 일간지와 어린이 신문은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잡지는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 『한국출판연감』, 어린이 문학과 관련된 각종 자료에서 선택하였다. 셋째, 서평을 게재한 매체를 확인한 후에 개별 매체를 실시하여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정기적으로 일정한 분량 이상 수록한 매체를 선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서평 매체의 개별 서평에 대한 양적인 분석을 통해 서평을 평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평 매체를 추천하였다. 다섯째, 추천한 서평 매체에 수록된 서평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개별 서평의 특징을 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서평이 갖추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3 서평과 서평 매체의 특징

서평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서평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서평의 주요 목적이 도서관이나 개인이 어떤 도

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문학 평론의 한 형식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평이란 책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Boaz 1958, 67-68)이고 문학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한 부분(Tisdell 1958, 134)이라는 주장은 서평의 역할이 도서관의 도서 선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한편 좋은 서평은 책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머리 속에 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Horning 1997, x)이라는 주장과 서평은 무엇보다도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Fialkoff 1998)는 주장은 서평의 선정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은 어린이 도서 출판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과 가치도 함께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에서 장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안내 역할을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오늘날 어린이 신간 도서의 존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도구로서 서평의 역할은 더욱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와 신간 어린이 도서 출판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평의 평가적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 매체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선정 도구로서 서평 매체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서평 매체는 신간 자료의 존재를 알리거나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서평을 수록한 매체로 정기적인 갱신을 필요로 한다.

서평이 선정 도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인 서지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서명, 저자, 삽화가, 출판사, 출판일, 페이지 수, ISBN, 가격 등에 관한 정보는 서평이 선정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다. 둘째, 서평 도서의 개요, 주제, 범위, 문체, 삽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은 서평의 설명적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셋째, 서평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한 항목으로 적절한 독자수준, 저작의 용도, 서평자의 견해 등이다.

서평 매체를 평가하는 항목을 형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형태적인 측면의 분석은 서평 매체의 외형적 특성으로 서평 매체의 서문, 목차, 일러두기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내용적인 측면의 특성은 개별 서평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서평의 외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목적'으로 서평 매체의 발행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서평 매체의 권위'는 서평 매체의 발행 기관과 편집자, 서평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범위'는 서평 매체가 수록하고 있는 자료가 어떤 형태와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이용방법과 기입에 대한 설명'은 서평 매체가 그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다섯째, '선정 기준'이란 서평 매체가 수록하고 있는 서평 대상 자료에 대한 포함이나 누락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섯째, '조직과 배열' 항목에서는 서평 매체의 전체 조직이 어떤 형식으로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일곱째, '색인과 부록' 항목에서는 서평 매체에 포함된 각각의 서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색인과 이용을 도와줄 부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덟째, '편집 마감일과 발행간격'에서는 서평 매체가 편집을 위해서 자료의 마감 시기를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와 발행 간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로 최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홉째, '발행 형태'와 '가격' 항목에서는 서평 매체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와 비용을 확인한다. 발행형태와 비용은 연관되는데, 개별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서 구입 형태와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의 평가 항목은 기입의 내용과 다른 매체와의 비교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의 평가 항목은 결국 개별 서평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서평의 서지정보, 해제, 추천 유무나 정도 표시, 서평자 정보 등을 어떻게 게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별 서평을 다른 서평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비교함으로써 서평 매체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2. 서평 매체의 분석

2.1 대상 선정과 분석 방법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를 평가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는 매체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도서

를 서평하는 매체의 종류를 일간지, 잡지, 온라인 형태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도서만을 서평하는 전문지는 없지만, 많은 매체에서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거나 신간 소개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널리 알려진 것이 일간지의 서평 면이다. 대다수의 일간지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서평 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도 독립적인 면을 할당해서 다루고 있거나, 적어도 한 코너에서 어린이 도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의 하나로서 종합 일간지의 서평 면, 어린이 신문의 서평면, 잡지 등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 도서 서평을 게재한 매체로 파악된 서평 매체 목록이 <표 1>이다.²⁾

일차 선정 작업을 통하여 확인한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를 실시하여 2002년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는 매체 중에서 어린이 도서 서평

에 일정한 비율의 지면을 정기적으로 배정하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용 분석을 할 서평 매체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서평 매체는 종합 일간지 10종, 어린이 신문 4종, 잡지 9종(표 1 참조)으로 이들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서평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 선정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서평 매체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각각의 서평 매체에 게재된 서평의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로 일간지 10종과 어린이 신문 4종, 잡지 9종에 게재된 서평의 게재일, 게재면, 서평의 형식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는 서평 목록에서 서평된 도서의 서지 사항에 대한 완전한 서지 정보를 가진 서지 목록을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서점의 목록을 통하여 대조 비교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전체 서평 도서를 구별하는 기본 키로서 ISBN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표 1> 선정된 서평 매체

종합 일간지	어린이 신문	잡지 1	잡지 2	잡지 3
경향신문	굴렁쇠	과학교육	간행물윤리	동화 읽는 가족
국민일보	소년동아일보	배워서 남주자	독서신문	동화 읽는 어른
대한매일	소년조선일보	새교육	서평문화	복세통
동아일보	소년한국일보	생각이 저요 저요	출판저널	아동문학평론
문화일보		초등 우리교육		아침햇살
세계일보				열린 어린이
조선일보				이달의 책
중앙일보				일러스트
한겨레				창비 어린이
한국일보				책으로 여는 세상

주1) 잡지 1: 『한국잡지정보관』 사이트에서 선정
 잡지 2: 『한국출판연감』에서 선정
 잡지 3: 어린이 문학 관련 각종 자료에서 선정
 주2) 짧은 글자의 매체는 내용 분석 서평 매체임

로 지금까지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서평 색인 목록과 서평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각 서평 매체가 같은 도서를 어떤 방식으로 서평하였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서평한 도서의 서평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각각의 서평을 이론 연구에서 제시한 항목에 따라 분석하였다.

2. 2 매체별 분석

2. 2. 1 일간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종합 일간지는 모두 일주일에 한번씩 서평 면을 발행하는데, 보통 배당하는 지면의 분량은 2면에서 8면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 면 전체를 제공하지 않으며, 한 면 중에서 1/3은 광고에 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량은 그보다 적었다.

종합 일간지중에서 성인 도서 서평 면과 별개로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발행하는 일간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었다. 이 중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성인도서 서평 면과 다른 요일에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발행하였고, 『한국일보』는 성인도서 서평 면 발행일에 어린이 도서 서평 면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외에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은 전체 도서 서평 면에서 어린이 도서를 정기적으로 두 권 이상씩 서평하고, 평균 다섯 권 이상의 어린이 도서 신간을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 일간지에서는 어린이 도서에 관한 서평을 신고 있지만 고정적인 칼럼의 여부와 외부 서평자의 운용, 지속적인 지면 할당 등의 측면에서 일간지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일간지 어린이 도서 서평 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2002년도에 발행된 일간지에서 어린이 도서 지면의 서평 또는 신간 소개에서 소개한 건수는 3,018건이고, 서평한 책의 수는 1,452권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사나 부모를 위한 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어린이 도서를 소개한 서평 총수는 2,999건이고 서평한 책

<표 2> 일간지 서평면 현황

일간지명	서평 면 제목	서평면수	발행요일	새책 소개면 이름	외부필자
경향신문	책마을	1/2 면	토	새로나온 책	없음
국민일보	책과 길	1 면	금	책꽂이-어린이	없음
대한매일	책	1/2 면	금	책꽂이-아동	없음
동아일보	어린이 책	1 면	수	새 책 나왔네	있음
문화일보	북리뷰	1/8 면	금	없음	없음
세계일보	북월드	1 면	토	새로나온책-어린이	없음
조선일보	어린이 새책	1 면	토	새 책	있음
중앙일보	꾸러기 책동네	1 면	토	꾸러기 책광장	있음
한겨레	우리집 책꽂이	1 면	월	새로나온 책	없음
한국일보	책과세상: 어린이	1 면	토	어린이 새 책	없음

의 수는 1,438권이다. 따라서 어린이 도서는 평균 한 책 당 2번씩 서평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02년의 출판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도서는 총 6,103종이 간행되었고, 그 중에서 1,438권을 서평 했으므로 전체 출판된 어린이 도서 중에서 23.7%만이 일간지를 통해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일간지별 서평 수를 보면, 『경향신문』이 375건, 『국민일보』가 366건, 『대한매일』이 336건, 『동아일보』가 296건, 『문화일보』가 153건, 『세계일보』가 202건, 『조선일보』가 389건, 『중앙일보』가 234건, 『한겨레』가 399건, 『한국일보』가 269건이다. 이 서평을 다시 기사 형식의 서평과 신간 소개 형식의 서평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기사 형식의 서평은 기명 기사이거나, 또는 기명 기사는 아니더라도 기사로 볼 수 있는 것을 지칭하였다. 신간 소개 형식의 서평은 분량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새로 나온 책’이라는 기사 제목 아래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것을 가리

킨다. 신문마다 신간 소개에서 다루는 내용의 길이는 다르기 때문에 신문에 따라서는 다른 신문의 일반 기사와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신간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간지에서 1년간 서평한 책 수를 살펴보면 『경향신문』은 372권, 『국민일보』는 361권, 『대한매일』은 335권, 『동아일보』는 290권, 『문화일보』는 151권, 『세계일보』는 202권, 『조선일보』는 381권, 『중앙일보』는 234권, 『한겨레』는 389권, 『한국일보』는 266권이다. 서평 수와 도서 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각각의 일간지에서 같은 도서를 두 번 이상 서평하였기 때문이며, 두 번 이상 서평된 도서는 신간 소개에 연속하여 실린 경우, 이미 소개된 책이 계절이나 특정한 때를 위한 추천 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외부 필자가 쓴 글에 포함된 경우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개별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의 중복 정도를 보면 일간지 전체에서 서평한 도서의 수는 1,452권인데, 이 중에서 45.6%인 662권이 한

<표 3> 일간지 유형별 서평 수

매체 이름	기사 형식		신간 소개 형식		합계		기사 대 신간
	수	%	수	%	수	%	
경향	207	15.4	168	10.0	375	12.4	0.8
국민	112	8.3	254	15.2	366	12.1	2.3
대한매일	76	5.6	260	15.6	336	11.1	3.4
동아	99	7.4	197	11.8	296	9.8	2.0
문화	72	5.3	80	4.8	152	5.0	1.1
세계	186	13.8	16	1.0	202	6.7	0.1
조선	222	16.5	167	10.0	389	12.9	0.8
중앙	123	9.1	111	6.6	234	7.8	0.9
한겨레	151	11.2	248	14.8	399	13.2	1.6
한국	98	7.3	171	10.2	269	8.9	1.7
합계	1,346	100	1,672	100	3,018	100	1.2

개의 신문에서만 서평이 되었다. 10개의 일간지 모두에서 서평한 책은 한 권도 없고, 일간지 9개에서 공통으로 서평한 책은 1권이었다. 8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6권이고, 7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12권, 5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52권, 4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105권이고, 3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211권, 2개의 일간지에서 서평한 책은 379권이었다. 이 중에서 신간 소개에서 다른 도서를 제외하고 기사 형식의 서평에서 다른 책을 보면, 8개의 일간지에서 모두 다른 책은 2권이고, 7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 2권, 6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 2권, 5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 15권, 4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 28권, 3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 59권, 2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은 174권, 1개의 일간지에서 다른 책은 592권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무리 많은 서평을 게재하는 일간지를 구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일간지만 참조하는 경우는 전체 일간지가 서평하는 도서의 67% 이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간지 각각의 서평의 질적인 면은 평가하지 않더라도 특정 일간지만을 볼 경우에는 도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2 어린이 신문

어린이 신문은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린이 도서를 소개하였다. 『굴렁쇠』는 주간으로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며 서평 면의 이름은 없고, 고정 칼럼의 이름이 있는 경우와 칼럼 이름 없이 기사로 처리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신문 전체가 8면으로 발행되는데, 6면에 두 권의 책을 기사 형식으로 소개하고 기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8면에 ‘새 책 나왔어요!’란 고정 칼럼에 3권씩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이란 칼럼에는 한 권이나 두 권의 책을 소개하였다. 『굴렁쇠』의 책과 관련된 기사는 모두 기명 기사였다. 어린이 신문에 게재되는 서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어린이 신문에서 서평한 수는 1,404건이고, 신문별로 보면, 『굴렁쇠』가 295건, 『소년동아일보』가 300건, 『소년조선일보』가 361건, 『소년한국일보』가 448건이다. 다시 기사형식의 서평과 신간 소개 형식으로 나누면 『굴렁쇠』는 기사형식이 159건, 신간 소개가 136건, 『소년동아일보』는 기사형식이 133건, 신간 소개가 167건, 『소년조선일보』는 기사 형식이 217건, 신간 소개가 144건, 『소년한국일보』는 기사 형식이 220건, 신간 소개가 228건이다(표 5 참조).

<표 4> 어린이 신문 서평면 현황

어린이신문명	서평면 이름	요일	새책소개면이름	칼럼 제목
굴렁쇠	없음	수	새 책 나왔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책
소년동아일보	책마을	토	새로 나온 책	저학년 책꽂이
소년조선일보	책동산	목	새 책	화제의 책 새 책 맛보기 이번주엔 이런 책을
소년한국일보	글나라책마을	월	새로 나온 책	화제의 책 책꽂이 엿보기

〈표 5〉 어린이 신문 서평 수

이름	기사형식		신간 소개 형식		합계		기사 대 신간
	개수	%	개수	%	개수	%	
굴렁쇠	159	21.8	136	20.1	295	21.0	0.9
소년동아	133	18.2	167	24.7	300	21.4	1.3
소년조선	217	29.8	144	21.3	361	25.7	0.7
소년한국	220	30.2	228	33.8	448	31.9	1.0
합계	729	100	675	100	1404	100	0.9

어린이 신문 서평의 총 수는 1,404개인데 이것을 다시 책 수로 나누어 보면 전체 어린이 신문은 944권의 책을 서평하였다. 이것은 전체 2002년도 어린이 도서 전체 출판 종 수인 6,103개와 비교하면 15.5%에 해당하므로 어린이 신문은 어린이 도서 전체 출판 종수의 15.5%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어린이 신문 4개 모두에서 서평한 책 수는 14권이고, 3개에서 서평한 책 수는 87권, 2개에서 서평한 책 수는 245권, 1개의 신문에서만 서평한 책은 598권으로 전부 944권을 서평하였다. 어린이 신문에서도 역시 한 개의 신문만을 선택하면 다른 신문에서만 소개하는 정보를 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 신문 중에서 『굴렁쇠』는 전체 서평에서 중복되는 책이 한 권도 없는 반면에 나머지 어린이 신문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일간지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이유인데, 신간 소개에 연속해서 실린 경우, 이미 소개된 책이 계절이나 특정한 때를 위한 추천 도서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등이다. 또한 『굴렁쇠』는 신간 소개의 서평 역시 기명 서평이고 서평의 글자수도 다른 어린이 신문의 기사 형식의 서평과 비슷하며, 다른 어린이 신문의 기사 형식의 서평이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

에 다루는 일괄 서평이 많은 것과는 달리 한 권씩의 책을 서평하고 있다.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어린이 신문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2. 2. 3 잡지

『동화 읽는 어른』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회지이기 때문에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여야 구독할 수 있다. 『동화 읽는 어른』의 전체 구성은 책에 관련한 글들이 많고, 그 외에 회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실는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이달에 권하는 책>이라는 부분에서 다루는 서평이었다. <이달에 권하는 책>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채택 이유를 매 호 명시하고 개별 책에 대한 서평자의 이름은 없지만 선정위원의 명단은 제공하였다.

『배워서 남주자』는 주로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책과 관련한 글과 독서 교육의 실천 방법,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책 안에서 ‘초등’, ‘중등’ 부분이 분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서평 분석으로 채택한 부분은 초등 부분의 <이런 책이 있었네요>라는 서평란이었다. 개별 서평자의 이름은 없지만, 서평을 담당한 모임의 이

름과 구성원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제공하였다.

『생각이 저요 저요』는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부제가 ‘독서 논술 길라잡이’이며, 잡지의 내용은 독서와 논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독자는 어린이와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매 호마다 해당 호의 계절을 앞에 붙인 <봄(여름, 가을, 겨울)에 읽어야 할 좋은 어린이 도서 50>이라는 특집 면을 발행하였다. 이 특집에 게재된 서평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다. 이 목록은 독자인 어린이의 연령을 ‘아주 어린 어린이’, ‘작은 어린이’, ‘중간 어린이’, ‘큰 어린이’, ‘소년기 어린이’, ‘여러 어린이’ 등 6 단계로 나누어서 간단한 서평을 게재하였다. 서평을 선정하는 과정은 독서 지도자 모임인 <책 읽는 사람들> 회원이 1차 선정 작업을 하고, <좋은 책 선정위원회>이 선정을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선정 작업을 하는 모임과 좋은 책 선정위원회의 명단은 제공하지만 선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평문화』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전문 서평지로 어린이 도서는 매 호 4책씩 게재하며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다.

『아동문학평론』은 아동문학평론사에서 발행하는 계간지로 아동문학가를 주요 독자로 하며 잡지의 내용은 동화, 동시 등의 아동문학작품과 평론, 서평을 실고 있다.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문학 관련 잡지에 발표되는 동화, 동시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게재하고 서평은 매 호 3편 이상씩 게재하였다.

『아침햇살』은 어린이 문화 전문지를 표방하

는 잡지로 동화, 동시, 어린이 문화 관련 글, 평론, 리뷰 등을 게재하였다. 매 호마다 <리뷰: 좋은 어린이 도서 찾기> 라는 부분에서 어린이 도서를 평가하고 간단한 평을 실고 있었다. 이 잡지의 서평이 특이한 점은 각 서평자의 이름과 더불어 서평한 책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 책당 한 명 이상의 평가자가 각기 다른 평과 함께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간행하는 잡지 매 호에 평가 방법과 이유, 평가자 명단을 게재하였다.

『이달의 책』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격월간으로 자료가 추가되었다. 『이달의 책』에서 선정하는 책은 개별 출판사가 한국출판인회의에 추천 의뢰하는 책 중에서 선정 위원들이 심사하여 채택하고 평을 게재하였다. 매 호마다 선정 과정에 대한 총평과 개별 책에 대한 기명 서평이 있었다.

『일러스트』는 주요 독자가 현직 일러스트레이터와 일러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어린이 도서의 특성상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어린이 도서에서 그림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잡지의 본문 기사 내용에서도 그림책의 그림 작가와 그림책 자체에 대한 내용도 많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채택한 것은 <Book Case>라고 이름 붙인 부분에서 다루는 간단한 어린이 도서에 대한 평이다.

『초등 우리교육』은 (주)우리교육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초등학교 교사를 주요 독자로 하고 있다. <새 책 나왔어요>에 어린이 도서와 교사를 위한 도서를 구별해서 게재하였다.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 잡지 서평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잡지의 전체 서평 수는 1,415건이고, 『동화 읽는 어른』이 167건, 『배워서 남주자』가 104건, 『생각이 저요 저요』가 200건, 『서평문화』가 12건, 『아동문학평론』이 20건, 『아침햇살』이 390건, 『이달의 책』이 57건, 『일러스트』가 295건, 『초등 우리교육』이 170건이다(표 7 참조). 『아침햇살』은 한 책에 대하여 여러 서평자의 평가를 수록하였는데, 책당 서평자의 수가 일정하지 않고, 또 다음 호에 같은 책에 대한 다른 서평자의 서평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서평 수는 390건보다 많다.

그러나 전체 서평 수를 계산할 때는 한 책을 여러 명의 서평자가 했더라도 일단은 하나의 서평으로 간주하였다.

1,415건의 서평에서 다른 책은 940권이고, 잡지 9개에서 모두 다른 책은 없고, 6개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1권, 5개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5권, 4개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22권, 3개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53권, 2개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200권, 각각의 잡지에서 다른 책은 659권이였다. <표 7>에서 제시된 서평 수는 실제 잡지에서 다른 책 수와 같다. 예외는

〈표 6〉 잡지 서평란 현황

잡지명	서평란 이름	선정 기준	주요독자
동화 읽는 어른	이달에 권하는 책	명시	일반
배워서 남주자	이런 책이 있었네요	명시	독서교사
서평문화	서평전문지	명시 안함	일반
생각이 저요 저요	(계절)에 읽어야할 책 50	명시 안함	독서교사
아동문학평론	서평	명시 안함	아동문학가
아침햇살	리뷰: 좋은 어린이 책 찾기	명시	아동문학가, 일반
이달의 책	서평전문지	명시	일반
일러스트	Book Case	명시 안함	일러스트레이터
초등 우리교육	새로 나온 책: 아이들 책	명시 안함	초등교사

〈표 7〉 잡지 서평 수

잡지 이름	발행 간격	전체 서평 수	%	매 호 평균 서평 수
동화 읽는 어른	월간	167	11.8	14
배워서 남주자	월간	104	7.3	9
생각이 저요 저요	계간	200	14.1	50(17)
서평문화	계간	12	0.8	3(1)
아동문학평론	계간	20	1.4	5(2)
아침햇살	계간	390	27.6	98(33)
이달의 책	격월간	57	4.0	10(5)
일러스트	월간	295	20.8	25
초등 우리교육	월간	170	12.0	14
합계		1,415	100.0	

(): 월간으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서평 수를 월 평균으로 다시 계산한 수

『일리스트』에서 같은 책 한 권을 1월과 12월에 두 번 서평한 경우 뿐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현상은 출판사에서 재쇄인 경우의 책을 신간이라고 안내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행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서평의 서지 정보에서 출판일을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잡지에서 다룬 전체 서평을 보면 월 평균으로 게재하는 서평의 수가 1권에서부터 33권까지 다양하다. 가장 많은 책을 서평하는 잡지는 『아침햇살』로 계간이기는 하지만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33권 정도씩 서평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간지 전체의 월별 평균 서평 수는 25개이고, 어린이 신문 전체의 월별 평균 서평 수는 29개이다. 이에 비해서 전체 잡지의 월별 평균 서평 수는 12개이다. 그러나 일간지와 어린이 신문의 경우는 전체 평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잡지의 경우는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평균적인 서평 수를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잡지의 서평 수가 다른 매체보다 적다. 절대적인 서평의 양 부족은 모든 서평 매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지만 잡지를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단점이다.

3. 서평의 내용 분석

3.1 분석 항목과 방법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개별 서평의 내용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항목을 만들었다. 서평의 내용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첫 번째는 서

평의 물리적인 체계를 측정할 수 있는 ‘형식’이고 두 번째는 서평의 서술 방법과 세부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형식’에서 측정할 항목은 다시 ‘서평 정보’와 ‘서지 정보’로 나누었고 이 항목은 개별 서평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서평 정보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서평자 이름, 서평자 직업, 서평의 길이이고, 서지 정보 항목에서는 서명, 저자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일, 페이지, 판형, 장정, 가격, ISBN 등이다. 서평자 이름과 서평자의 직업은 서평의 기명 유무와 서평의 내용적인 특성에 서평자의 직업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서평의 길이는 글자수로 측정하였는데, 방법은 MS-WORD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공백을 포함한 수이다. 서지 정보 항목은 서평을 선정 도구로 이용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신원 확인 정보이며, 판형, 장정은 서평 도서의 판형이나 크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내용’에서 측정할 항목은 ‘설명적 논평’과 ‘평가적 논평’으로 나누었다(표 8 참조). 설명적 논평 항목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서평 도서의 개요, 주제, 유형, 문체, 삽화이고, 지식책의 경우에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을 추가하였다. 평가적 논평 항목에서 다루는 세부 항목은 독자 연령과 학년에 대한 권고 사항, 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의 다른 책과의 비교, 해당 도서에 대한 특정한 관심을 가질만한 독자에 대한 안내, 교과목에 도움이 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용 가능성, 평점이나 적극적인 추천, 기타 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 등이다.

〈표 8〉 내용적 특성 분석 항목

대항목	중항목	세부 항목
형식	서평 정보	①서평자 이름 ②서평자 직업 ③서평의 길이
	서지 정보	①서명 ②저자명 ③삽화가명 ④번역자명 ⑤출판사 ⑥출판일 ⑦페이지 ⑧판형/장정 ⑨가격
내용	설명적 논평	①개요 ②주제 ③유형 ④문체 ⑤삽화 ⑥정확성 ⑦범위 ⑧구성
	평가적 논평	①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 ②비슷하거나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③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 비교 ④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자에 대한 안내 ⑤교과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⑥평점이나 적극적인 추천 여부 ⑦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

3. 2 내용 분석에 의한 매체별 특성

3. 2. 1 일간지

서평자는 대개가 해당 신문사의 기자이고 어린이 도서를 담당하는 기자는 대부분 1명이 고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글도 보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경우에 그친다.

일간지에서 선정된 서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서지 정보 항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일간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일간지가 가장 중요한 서지 정보로 생각하는 것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간 소개에서 안내하는 책들은 모두 가격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 서평 면에서 주요 기사로 취급하는 책의 경우에는 가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었다. 저자와 더불어 중요한 공헌자인 그림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간지가 많았고, 마찬가지로 번역자 정보도 소홀히

다루었다. 어떤 신문도 출판일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동아일보』만이 게재하는 책의 페이지 수를 명시하였고 책의 페이지와 크기에 대한 정보인 형태 사항을 제공한 경우는 없었다.

일간지 서평의 공통적인 속성은 몇몇 신문을 제외하면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일관성 측면에서라면 『동아일보』가 꾸준히 수 록하는 모든 기사에 같은 형식을 부여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간지가 이러한 나름의 형식을 세웠던더라도 외부 필자가 쓴 기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보였다. 기본적인 서지사항인 서명, 작가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출판일, 페이지, 크기 등의 정보는 생략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설명적 논평 항목을 종합하면, 서평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항목이 개요이며,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나 내용 요약을 포함해서 실제 책 속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요를 제외한 설명적 논평 항목인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었다. 실제로 이런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평의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해한 것에 더하여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등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평가적 논평 항목의 정보들도 대부분의 신문 서평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평가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해당 도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더불어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 분석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간지의 서평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해당 서평 도서 표지의 천연색 사진을 게재하거나 책의 삽화의 일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진들이 책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도 사실이고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각화해서 빨리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면을 많이 차지함으로써 글로 표현해야 하는 많은 정보들이 생략된다는 단점도 동시에 지닌다.

전반적으로 일간지의 특성 중 하나인 속보성에 따라 비교적 최신간에 대한 안내가 다른 매체보다 빠르다는 점과 함께 비교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어린이 도서에 대하여 양적으로 많이 소개한다는 측면, 대중매체로서의 커다란 영향력 등은 다른 형태의 서평 매체가 갖지 못한 장점이다.

신문의 서평은 게재되는 매체인 신문의 특성을 반영하므로 서평의 주요 독자는 일반인이고, 어린이 도서에 대한 새로운 안내와 어린이 독서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서평면을 구성하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만 일반적인 동향 파악과 독자의 관심이 어떤 매체의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 선정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기본 도구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매체이다.

3. 2. 2 어린이 신문

기본적으로 어린이 신문의 독자는 어린이이므로 서평 면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어린이 독자에게 새로운 책을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어린이 신문은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독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어린이 열람실의 사서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매체이다. 따라서 어린이 신문에 게재되는 서평을 통해서 해당 책을 보고자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사서들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굴렁쇠』는 다른 어린이 신문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일관성 있는 서지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 소개의 글도 작성한 기자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글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하였다. 어린이 신문에서 서평자는 모두 해당 신문사의 기자로, 어린이 도서 면을 담당하는 기자는 1명이고 예외적으로 『굴렁쇠』의 경우는 두 명이 각각 다른 면을 담당하였다.

어린이 신문에서 선정한 서평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면 서지 정보 항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든 어린이 신문이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서지 정보로 생각하는 것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 등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 신문의 경우 분석 서평 50개 중에서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딱 한번 있었다. 저자와 더불어 중요한 공헌자인 그림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서평이 16개였다. 이러한 수는 서평 50개 중에서 그림 작가가 없는 것 4건을 제외하면 1/3이나 되었다. 번역자에 대한 정보는 그림 작가보다도 더 소홀히 다루어서 번역자가 있어야 할 서평에서 1/2이 없었다. 또한 출판일과 책의 페이지와 크기에 대한 정보인 형태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 신문 서평의 특징은 일간지보다는 일관성 있게 서지 정보를 기재한다는 점이었다. 기본적인 서지사향인 서명, 작가명,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사명, 출판일, 페이지, 크기 등의 정보는 생략하지 않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설명적 논평 항목의 세부 항목별로 보면, 서평의 전체 내용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는 항목이 개요에 대한 서술이었다. 그 외의 항목인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범위, 구성 등에 대한 기술은 전체 서평이 일관성 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졌다. 실제로 설명적 논평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이해한 것에 더하여 주제, 유형, 문체, 삽화, 정확성 등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이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평가적 논평 항목의 세부 항목도 대부분 서

술하지 않았다. 이밖에 표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나 비교적 최신성 있다는 점은 어린이 신문 서평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어린이 신문 역시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보완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더 높은 매체라고 할 수 있다.

3. 2. 3 잡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9개의 잡지 중에서 실제로 서평을 분석한 잡지는 8개이고 제외된 잡지는 계간인 『아동문학평론』이다. 다른 8개의 잡지와는 선정하는 도서의 경향이 완전히 달라 공통적인 서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동화 읽는 어른』은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지이고 게재하는 서평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책들이다. 여기에 게재되는 서평들은 서지 정보를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정확하게 기재하였고, 유형별 분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선정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매 호 선정 과정에 대한 총평과 과정에 대한 경위를 명시해 주고 내부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서평 매체가 지녀야 할 권위를 보증할 수 있다. 그러나 『동화 읽는 어른』에서 소개하는 책들은 양적으로 너무 적는데, 자체의 의논 결과 읽을만한 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에 미흡한 많은 책들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서평의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서평의 내용을 기술하기 이전에 많은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른 매체의 서평이 제공하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

리나라의 서평 매체가 갖는 한계점은 있다. 이 한계점은 어린이 도서 전문가가 보는 관점과 사서가 어린이 도서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으로 도서관의 선정 도구로서 서평이 지녀야 할 요소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배워서 남주자』는 독서 교육 전문가를 위한 잡지로 역시 서평 전문지는 아니다. 그러나 독서교육에서 책이라는 매체가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책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잡지는 책을 독서 교육의 자료라는 측면에서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잡지에 수록되는 서평 도서들은 일종의 추천도서이므로 그 점에서는 신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서지 정보의 생략과 내용 분석 항목이나 주관적 분석 항목 등의 세세함은 『동화 읽는 어른』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 저요 저요』는 독서와 논술을 도와주는 것이 잡지의 목적이므로 역시 서평 전문지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잡지에 게재되는 서평은 어린이문화진흥회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도서이며 좋은 책 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도서 선정 과정을 신뢰할 수도 있지만 자세한 선정 정책과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서평의 선정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선정 기준을 명시하면 더 좋을 것이고 서평 내용을 좀 더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해서 선정 도구로서의 적절성을 지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서평 문화』는 서평 전문지를 표방하고 있고, 개별 서평의 분량에서는 어떤 다른 매체의 서평보다도 길지만 양이 질적인 측면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서평문화』가 갖는 선

정 도구로서의 취약점은 소개하는 책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매호 어린이 도서는 네 권 정도 소개한다. 선정 도구로 이용하는 서평지가 갖추어야 할 장점 중의 하나인 서평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합하고 절대적인 수의 부족 때문에 선정 도구로서의 가치는 거의 부족하다.

『아침햇살』은 어른이 읽는 어린이 문화 전문지를 표방하는 잡지로 역시 서평전문지는 아니다. 하지만 서평 위원 제도를 활용하고, 잡지 내부적으로 명확한 선정 기준이 있으며 매 호 선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였다. 기명 서평을 게재하고, 한 호당 평균 100권 정도의 서평을 게재하므로 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매체에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 책을 두 명 이상의 서평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평의 수만 계산하면 더 많다. 『아침햇살』은 계간지이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매체에 뒤지지 않으며 매 호마다 좋은 어린이 도서로 선정된 책 목록을 발표한다. 평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많은 서평에 대하여 서평자의 비판적 견해가 명시되는 유일한 서평이고, 다양한 분야의 서평자로 인해서 서평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문학작품을 주로 서평하는 경향과 문학작품을 더 잘 서평한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 계간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선정 도구로서 갖추어야 할 최신성은 뒤떨어지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른 서평 매체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동화 읽는 어른』 정도의 유용성은 있다.

『이달의 책』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운영하

는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서평 매체인데, 여기에 게재되는 서평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이름으로 추천하는 도서이다. 매 호 선정위원들이 추천 도서 선정에 신청한 책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책들을 평가한다.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이 있고, 매 호마다 선정 경위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주지만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서평되는 도서가 전체적인 양으로 본다면 많지 않다. 서평을 웹 사이트에서 이용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매체가 지니는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고, 단지 책의 형태가 아니라 웹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이다. 비교적 서평의 내용이 충실하고, 서지 정보도 충실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에는 양이 적다는 점과 격월간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최신성에서 문제가 된다.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 즉 삽화가 또는 그림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잡지이며 전문 서평지는 아니다. 그림을 주제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글 작가보다 그림 작가의 이름을 먼저 기재하고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포함하여 삽화에 대하여 다른 매체보다 많이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삽화에 대한 평을 서술한 경우의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더 심도 있는 글을 게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서평이 다른 매체의 서평과 비슷한 정도이고 독특하거나 더 뛰어난 면은 없지만 다른 서평 매체와 비교하여 양적으로 많은 분량을 게재하였다. 기본 선정 도구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보완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초등 우리교육』은 교사를 주요 독자로 하는 월간지이며 서평 전문지는 아니다. 양적인

면에서 볼 때도 한 달에 10권 내외의 책을 소개하고 서평의 내용도 특이한 점은 없지만 교사가 독자인 점을 고려해서 책의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3.3 선정 서평 매체

서평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평 매체에 수록된 개별 서평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부 항목을 기재하고 있는지와 기재하였다면 어떤 위치에 기술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서평을 선정 도구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평의 내용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식적인 측면의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서평 매체가 선정 도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평 매체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첫째, 서평 도서 선정 기준의 명시 여부, 둘째, 서지 정보 항목 기재 여부, 셋째, 설명적 논평 항목에 대한 기술 정도, 넷째, 평가적 논평 항목의 기술 정도 다섯째, 서평의 주요 독자이다. 서평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매체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었다. 서지 정보 항목의 기재 여부는 개별 항목을 일관성 있게 충실히 기재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었고, 설명적 논평 항목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 중에서 개요 이외의 항목에 대한 기술이 충실한지에 중점을 두었다. 평가적 논평 항목은 일관성 있게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항목을 기술하

였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서평의 주요 독자를 일반인보다는 특정한 집단으로 설정한 매체에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각 매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결과이다. <표 9>에서 서평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특징과 선정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서평 매체를 추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의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하였다.

4. 선정된 매체의 서평 분석

4.1 서평 선정과 분석 방법

분석 대상 서평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제35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2002년)와 「제36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2003년) 목록의 ‘아동·청소년·만화(25종)’ 분야로 추천된 도서 중에서 선택하였다. 이 목록은 문화관광부에서 전해년도 9월 1일부터 당해년도 8월 31일 사이에 처음 발행된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매년 10월 말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 목록의 책 중에서 추천 서평 매체에 서평이 게재된 도서는 12권으로, 10권은 35회 추천도서이고, 2권은 36회 추천도서이다. 35회 추천도서 중에서 서평이 있는 도서는 『고양순』, 『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그림 옷을 입은 집』, 『깡딱지』, 『맥도널드 아저씨의 아파트 농장』, 『우리 좋은 창작 동화 20선』, 『우리나라 오천년 이야기 생활사』, 『자연의 빛』, 『주강현의 우리 문화』, 『go go! 체험학습 시리즈』이다. 36회 추천도서 중에서 서평이 있는 도서는 『내 이름이 담긴 병』, 『우리 누나』이다.

두 번째 방법은 추천 매체에서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서평하고 있는 도서 9권을 선택하였다. 6개의 추천 매체에서 모두 서평하고 있는 도서는 없었고, 5개의 매체에서 서평한 도서가 1권, 4개의 매체에서 서평한 도서가 8권이였다. 추천 매체 6개 중에서 4개 이상의 매체에서 공통으로 서평한 도서는 『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국화』, 『불꽃머리 프리데리케』, 『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 『체리나무 할아버지』,

<표 9> 매체별 특징 비교

	일간지	어린이 신문	잡지
특징	최신성 양적 풍부함 영향력 천연색 표지 사진 서지 정보의 불충분 설명적 논평 부족 평가적 논평 부실	최신성 양적 풍부함 영향력 천연색 표지 사진 서지 정보의 불충분 설명적 논평 부족 평가적 논평 부실	권위 신뢰성 양적 부족 최신성 부족 서지정보 충실 설명적 논평 충실 평가적 논평 충실
추천 매체	없음	굴렁쇠	동화 읽는 어른 배워서 남주자 생각이 저요 저요 아침햇살 이달의 책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터널』, 『평화는 힘이 세다』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추출한 서평 도서와 두 번째 방법으로 추출한 서평 도서 중 중복되는 도서는 『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뿐이었다.

4. 2 서평의 심층 비교

여섯 개 서평 매체에 수록된 서평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은 내용적 특성 분석 항목 중에서 ‘서지 정보’ 항목과 ‘내용’에 속하는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하였다.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서평 매체의 서평을 다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성을 재확인하였고, 서평 매체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발견하였다.

서지 정보, 설명적 논평, 평가적 논평 항목을 중심으로 서평 매체의 역할을 종합 분석하였고, 서평 매체별로 서평한 도서에 대한 각 항목의 기재 여부를 분석한 것이 <표 10>이다.

서지 정보 항목 중에서 모든 매체가 생략하지 않은 항목은 서명, 저자명, 출판사이고, 출판일과 페이지, 가격을 기재한 매체는 『동화 읽는 어른』, 『생각이 저요 저요』, 『이달의 책』이다. 서지 정보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입한 매체는 『생각이 저요 저요』로 나타났지만 실제 개별 서평을 보면 삽화가명과 번역자명 중에서 하나가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였다. 즉, 『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의 번역자는 기입하지 않은 반면, 『터널』의 번역자는 기재하였는데, 이것은 전자의 경우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서로 다른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글 그림 작가가 동일인이어서 편집 과

정에서 번역자를 기재할 여백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보면, 모든 서지 정보를 기재한 매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서지 정보 항목 기재에서는 일관성이 보이기 는 하지만, 삽화가명, 번역자명, 출판일에 대한 항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달의 책』의 경우는 책의 크기와 장정 형태를 알려주는 정보가 있지만 실제 서평 도서와 대조해 보면 그 정보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입력할 때 고정값으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항목을 삭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동화 읽는 어른』은 출판일을 월, 일까지 기재하였고, 『아침햇살』과 『이달의 책』은 월까지 기재하였다.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페이지를 기재하는 방법인데, 분석 대상 서평 도서중 그림책을 제외한 도서 모두가 페이지를 면지 다음 장부터 1쪽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페이지를 기재했든 안했든 마지막 페이지는 면지 바로 전 장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페이지를 기재한 매체는 『생각이 저요 저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매체의 경우는 책에 기재된 수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 개 서평 매체 모두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설명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한 항목은 개요와 주제에 관한 언급이고 유형, 문체, 삽화에 관한 서술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형, 문체, 삽화에 관한 서술을 하더라도 대략적인 기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표 10〉 서평 매체별 항목 포함 정도

항목	매체명	굴림쇠 (6권)	동화 읽는 어른 (6권)	배워서 남주자 (6권)	생각이 저요 저요 (7권)	아침햇살 (6권)	이달의 책 (6권)
서지정보	서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저자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삽화가명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⑦⑧	①②③⑤	②③④⑧	①③④	
	번역자명	①②⑨	②③⑥		③⑨	①⑤⑥	
	출판사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⑥⑧⑨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출판일		②③④⑥⑦⑧		②③	①③④⑤⑥⑨	①④⑤⑥⑦⑧
	페이지		②③④⑥⑦⑧	①⑤⑨	②③④⑥⑧⑨		①④⑤⑥⑦⑧
	판형/장정				②③④⑥⑧⑨		
	가격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⑤⑦⑨	②③④⑥⑧⑨		
	설명적	개요	①②④⑦⑧⑨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⑤⑥⑨	③④⑤⑥
주제		①②④⑧⑨	②③④	①②③⑤⑨	②③④⑤⑥⑧⑨	①③⑤⑥⑨	①④⑤⑥⑧
유형		①②	②③④⑥⑦⑧		②③	①④⑨	④⑥⑦
문체		②⑦	⑧	③⑨	②⑧	④	①④
삽화		⑦	⑦	①⑦		①③	④⑦
정확성		⑦⑧	⑧	⑦			⑦⑧
범위		①⑦⑨	⑦⑧	①	⑧		
구성		⑧⑨	⑦	⑦	⑧	⑨	⑦
평가적	독자연령/학년		②③④⑥⑦⑧	①②③⑤⑦⑨	②③④⑤⑥⑧⑨		
	동일주제 책 비교						
	동일저자 책 비교						
	흥미 독자						
	교과목 / 기타 용도	⑦⑨		②⑤	⑤		
	평점/추천	⑧	⑧	③⑦		⑨	⑦
	서평자 주관적 견해	②⑦⑧⑨	③			①③④⑤⑥⑨	④⑤⑥⑦

주) ①공룡 할머니가 들려주는 진화 이야기 ②죽으면, 아픈 것이 나올까요? ③터널 ④국화
 ⑤볼꽃머리 프리데리케 ⑥체리나무 할아버지 ⑦세밀화로 그린 곤충도감
 ⑧궤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⑨평화는 힘이 세다

이었고 심층적인 서술은 거의 없었다. 특히 그림책의 경우에는 좀더 정교하게 그림에 대한 서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서술 또는 서평자의 단순한 느낌 정도의 서술에 그치

는 경향을 드러냈다. 문체에 관한 언급도 대부분이 ‘읽기 쉽다’,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야기 해 주듯’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주관적 인상이 강한 서술이었다. 지식책의 서평에

서는 범위와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서평 매체가 책의 구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간결하게 넘어가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책의 정확성 또는 신뢰성에 대한 항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주로 의존하는 정보를 책 자체에서 구하는 것으로 해당 서평 도서가 아닌 외부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적 논평’의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서평자의 주관적 견해 항목으로 『아침햇살』, 『이달의 책』이 가장 많이 기술하였다. 다음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서술 즉, 책의 용도에 관한 기술인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매체는 『배워서 남주자』와 『생각이 저요 저요』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두 매체가 기본적으로 독서 지도를 하는 교사와 어린이를 위한 잡지라는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추천과 서평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관한 것으로 『굴렁쇠』는 적극적인 추천과 함께 해당 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나 필요성,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다른 서평 매체보다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굴렁쇠』의 일차 독자가 어린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아침햇살』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서평 도서의 부족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평가적 논평 항목 중 독자 연령에 대한 항목을 기술한 매체는 『동화 읽는 어른』, 『배워서 남주자』, 『생각이 저요 저요』이고, 서평자의 주관적 견

해 항목을 기술한 매체는 『굴렁쇠』, 『아침햇살』, 『이달의 책』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독자의 연령이나 학년에 대해 『아침햇살』을 제외한 모든 매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다른 항목들, 즉 같은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 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의 비교, 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자에 대한 안내, 어떤 특정 교과목과의 연관성 등의 항목에 대한 기술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서평자가 서평 도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린이, 교과과정, 어린이 도서 전반에 걸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서평 매체에서 개별 서평의 즐거이나 등장인물 소개, 도서의 집필 배경, 구성에 대한 서술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물론 같은 도서를 서평하기 때문에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서평의 내용이나 중점을 두는 부분이 비슷하였다. 예외적인 서술 내용을 보이는 경우는 『아침햇살』이 독특하였다.

『아침햇살』을 제외한 다른 매체의 서평은 대부분 서평 도서에 대하여 호의적인 경향의 서술 태도를 나타냈다. 물론 『아침햇살』의 서평 모두가 비호의적인 서술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호의적인 경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선정 매체의 서술 내용 중에서 특이한 점은 매체에 따라 흥미를 유발하는 글로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매체로는 『굴렁쇠』와 『이달의 책』을 들 수 있는데, 서평 매체의 주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매

체의 경우는 어린이와 일반 성인이 서평을 읽는 독자이고 나머지 매체의 경우는 일차적인 독자가 독자 지도 교사, 문학가, 어린이 도서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는 글로 서평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선정 도구로서 단 하나의 서평 매체만을 이용하면 도서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Witucke 1980; Witucke 1982; Crow 1986; Meacham 1989; Bishop & Van Orden 1998; Wilson & Bishop 1999). 본 연구의 결과도 하나의 서평 매체만을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 서평 매체 중에서 추천한 매체만을 대상으로 한 서평 분석에서도 선정 도구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매체는 없었고, 추천 매체의 모든 서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였다.

설명적인 논평과 평가적인 논평에 대한 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평가적인 논평 보다는 설명적인 논평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자세하였지만, 두 항목 모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기술을 한 서평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평을 게재하는 매체에서 서평 도서의 양을 늘려야 하고, 서평의 내용에 대한 기술을 할 때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한 서술보다는 서평자의 전문적인 견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도서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삽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책의 경우에

는 무엇보다도 삽화와 글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삽화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평가가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는 어린이 도서 신간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는 어린이 도서의 존재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초등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도서를 선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서평의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서평과 서평 매체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독자를 사서로 생각하는 어린이 도서 전문 서평 매체의 발행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 서평 매체의 일차적인 독자는 일반인, 독서교육 전문가, 교사 등으로 이러한 서평은 해당 매체의 주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장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평 매체가 필요하다. 또한 서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평을 게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 매체가 발행되어야 한다.

둘째, 서평 매체의 주요 서평자는 어린이 문학 관련 연구자, 아동문학가, 어린이 도서 출판 관계자 등인데, 도서관의 관점에서 어린이 도

서를 볼 수 있는 교육 받은 서평자가 필요하다.

셋째, 서평의 서지 정보 항목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연구 대상이었던 서평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지 정보는 서명, 저자명, 출판사, 가격을 주로 제공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서지 정보도 중요하지만, 삽화가, 번역자 정보도 해당 도서를 평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므로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지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 서평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 서평 매체의 편집 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식권 있고 유능한 편집자가 필요하다.

넷째, 설명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은 대부분의 서평 매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지만, 가장 소홀히 하는 정보는 삽화, 문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지식책의 경우에는 거의 정확한 서술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서평 내용 기술에서 대체로 출판사의 보도 자료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점이고 암시적인 기술보다는 명시적 서술이 요구된다.

다섯째, 평가적 논평 항목의 요소들은 서평을 읽고 해당 도서의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사서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동일한 주제의 다른 책과의 비교나 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과의 비교, 흥미나 관심을 가질 특정한 독자에 대한 안내 등의 항목을 통해서 기존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비교하여 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고, 특정한 교과목이나 특정한 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적 논평 항목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서평자가 어린이 도서

전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 어린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개인이 모두 갖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을 포함한 주제명 표목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내 서평 매체의 특성 중의 하나가 해당 매체에 게재된 서평을 찾아 볼 수 있는 색인의 부재이다. 매호 발행하는 서평의 양이 적기 때문에 매번 개별 서평 매체에 색인을 첨부할 필요가 없더라도 연간 색인을 발행함으로써 서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서평 매체가 연간 색인의 발행도 하기 어렵다면 대안으로 어린이 도서 서평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어린이 도서 서평 색인지(가칭)’를 발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서평 색인지가 발행 되면 전체 어린이 도서 서평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평 색인지를 바탕으로 어린이 도서와 출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의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서평 색인지의 용도 중 하나는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선정 도구가 없는 국내의 상황에서 초등학교 도서관의 장서 개발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정 기준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어린이 도서 서평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를 찾았고, 발견한 서평 매체 중에서 선정 도구로 이용하기에 적절한 서평 매체가 무엇인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문화관광부. 2002. 10. 23 『제35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결과 발표. [인용일 11월 14일].
<http://www.mct.go.kr/uw3/dispatcher/korea/news/news_v.html?oid=@42314|1|9>.
- 문화관광부. 2003. 10.28. 『제 36회 문화관광부 추천도서-교양부문』 선정 결과 발표. [인용일 11월 14일].
<http://www.mct.go.kr/uw3/dispatcher/krea/news/news_v.html?oid=@10226|3|9>.
- 출판통계자료. 2003. [인용일 2003. 4. 29].
<<http://www.kpa21.or.kr/data/pubculture.html>>
- Bishop, Kay and Phyllis Van Orden. 1998. "Reviewing children's books: a content analysis." *Library Quarterly*, 68(2): 145-182.
- Blake, Virgil L. P. 1989. "The Role of reviews and reviewing media in the selection process: an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cord." *Collection Management*, 11(1/2): 1-40.
- Boardman, Edna M. 1994. "The Art & science of book reviewing." *Book Report*, 12(4): 17-18.
- Boaz, Martha. 1958. "The Reviews and reviewers of best sellers." In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by Leroy C. Merritt, Martha Boaz and Kenneth S. Tisdell, 41-132,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ss.
- Briley, Dorothy. 1993. "Children's librarians, reviews,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Evaluating Children's Books: a critical look*. edited by Betsy Hearne, 105-118.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Busbin, O. Mell and Susan Steinfirt. 1989. "Criticism of artwork in children's picture books: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Youth Services in Libraries*, 2(spring): 256-266.
- Buttler, Lois J. 1990. "Profiling review writers in the library periodical literature." *RQ*, 30: 221-229.
- Crow, Sherry R. 1986. "The Reviewing of controversial juvenile books: a study." *School Library Media Quarterly*, 14(winter): 83-85.
- Dodson, Janelle S. 1983. *A Content Analysis of Children's Picture Story Book Reviews Published in Selected Journals during the Year, 1981*. Ph.D. dis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 Doll, Carol A. 1990. "Research and juvenile reviewing media."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150-152.
- Elleman, Barbara. 1978. "Reviewing children's books." In *Book Reviewing*. edited by Sylvia E. Kamerman. Boston: The Writer.
- England, Claire and Adele M. Fasick. 1986. "Reviewing for a young audience" In *Library Science Annual*. edited by Bohdan S. Wynar, 30-38.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_____. 1987. *ChildView: Evaluating and Reviewing Materials for Children*.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 Evans, G. Edward.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Ferguson, Dana, ed. 2002. Introduction to *Book Review Index 2002 Cumulation*. Detroit: Gale.
- Fialkoff, Francine. 1998. "Reading the reviews." *Library Journal*, 123(4): 127.
- Galloway, Mabel Louise. 1965. *An Analytical Study of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Reviewing of Juvenile Books in Eight Journals and Newspapers with Special Regard to Their Usefulness as Selection Aids for School Libraries*. Ed.D., Columbia University.
- Harrington, Janice. 1993. "Children's librarians, reviews,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Evaluating Children's Books: a Critical Look*. edited by Betsy Hearne, 27-36.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raduate Schoo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Hopkins, Dianne McAfee. 1993. "Put it in writing: what you should know about challenges to school library materials." *School Library Journal*, 39: 26-30.
- Horning, Kathleen T. 1997. *From Cover to Cover: Evaluating and Reviewing Children's Books*.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Meacham, Mary. 1989.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ook Reviewing in Selected Journals from 1924-1984*. Ph.D. diss., Texas Woman's University.
- Merritt, Leroy C., Martha Boaz and Kenneth S. Tisdell. 1958.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Nilsen, Alleen Pace. 1991. "Speaking loudly for good books: promoting

- the wheat and winnowing the chaff." *School Library Journal*, 37(9): 180-183.
- Sutherland, Zena. 1997. *Children & Books*. 9th ed. New York : Longman.
- Temple, Charles, Miriam Martinez, Junko Yokota, and Alice Naylor. 1998. *Children's Books in Children's Hands: an Introduction to Their Literature*. Boston: Allyn and Bacon.
- Tisdell, Kenneth. 1958. "Staff reviewing in library book selection", In *Reviews in Library Book Selection*. By Leroy C. Merritt, Martha Boaz and Kenneth S. Tisdell, 133-178,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Townsend, John Rowe. 1971. *A Sense of Story: Essays on Contemporary Writers for Children*.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Wilson, Margo and Kay Bishop. 1999. "Criteria for reviewing children's book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3(1): 3-13.
- Witucke, Virginia. 1980. "A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book review media." *School Media Quarterly* 8(1): 131-137.
- _____. 1982. "The Performance of juvenile book review media." *Serials Review*, 8(spring): 153-160.